

구민 여러분의 멋진 삶을 기원합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장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 제8대 부산진구의회의 마지막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8대 의회가 시작하여 어느덧 4년차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의장직을 맡아 지방자치회의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대변자로 감시, 견제, 소통의 역할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지나고 보니 미흡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의회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회의장에게 주어져 보다 강력하고 절도 있는 집행기관의 견제자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8대 의회에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뽑아 법률 전문가를 채용했고 회계 전문요원을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큰 변화를 주어왔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의회 홍보계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 뵙고 부산진구를 위해 낮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인터뷰 하여 의회소식지에 실는 활동을 지속 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의원들을 보좌할 정책지원관 임용까지 이루어져 보다 적극적 자제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입장을 더욱 정확히 전달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주민분들을 보으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2022년에는 반드시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모든 분들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희 의원 19명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여 부산진구 발전에 작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고 민원제기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긍정적 마인드로, 적극적 활동으로 멋진 삶이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의회 ‘범 내려오다’

부산진구의회가 2022년 1월 19일 제32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2년도 임인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의회는 2022년에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7회 32일 등 총 9회 79일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 가운데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24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9대 의회를 이끌 어갈 새로운 원 구성이 이루어진다. 새로 구성되는 9대 의회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주요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은 제328회 정

■부산진구의회 2022년도 회기운영 계획

회수	회기	일수 (일/누계)	주요내용	비고
제320회	1.19(수)~1.21(금)	3/3	• 2022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제321회	3.23(수)~3.25(금)	3/6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 3.9 : 대통령선거
제322회	4.15(금)~4.19(화)	5/11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제323회	5.10(화)~5.19(목)	10/21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제324회	7.5(화)~7.7(목)	3/24	• 제9대 원 구성	• 7.1, 7.4 : 의정단 후보 등록
제325회	7.21(목)~7.25(월)	5/29	• 주요구정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제326회 (정례회)	9.19(월)~9.30(금)	12/41	•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구정질문 및 일반 의안	• 9.9~9.12 : 추석 연휴 • 구정질문
제327회	10.19(수)~10.21(금)	3/44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제328회 (정례회)	11.15(화)~12.19(월)	35/79		

【 총 회의일수 9회 79일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7회 32일 】
※ 연간 예정계획이므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례회를 열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구정질문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실시된다. 문의 : 의회사무국 홍보계 (605-6452)

의정포토뉴스



2022년 부산진구의회 시무식 개최

부산진구의회는 2022년 1월 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원들은 2022년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진 반대’ 결의문 채택

부산진구의회는 1월 18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에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회소식지] 구독하세요!

의정소식과 함께 지역의 이야기도 함께 담은 ‘부산진구의회소식지’ 구독 신청하세요.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의회간행물 구독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에 부산진구의회 표창장 수여

부산진구의회는 2022년 1월 3일 오전 8시 관내 의료법인의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의료복지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한 온종일병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협약 체결

부산진구의회는 2022년 1월 1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운영협약을 부산진구청장과 체결했다.

부산진구의회 소식, 유튜브에서도 보자!!

부산진구의회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YouTube)’에서 ‘부산진구의회TV 리얼의정’으로 검색하면 되고 ‘구독’을 클릭하면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의 : 의회사무국 홍보계 (605-6451~4)

부산진구의회 의원 2022년 임인년 새해인사

■배영숙 부의장=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사회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강하고 활기찬 호랑이의 기운으로 모든 일이 순조로워 지길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웃음꽃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현철 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득 안고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산진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부산진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더욱 노력하며 많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범기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년 호랑이(혹호)처럼 활기차고 용맹한 부산진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일태 위원장(문화복지위원회)=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솟아오르는 봄은 해를 보며 환한 한해의 시작을 해줍니다. 그동안 겪었던 힘든 일들은 경험으로 축적되어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큰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구민의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주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 곁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동호 위원장(안전도시위원회)=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시대의 종식은 아니지만 올해 영통한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모두 물리쳐 이전으로의 회복을 기원해 봅니다. 지난 한 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안전한 부산진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약 6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부천1동, 연지동)=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2022년 임인년이 왔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끝은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판삼아 힘든 일들도 긍정의 힘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으로 지역주민들께 먼저 다가겠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상상하며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



겠습니다. 임인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만정 의원(초읍동, 양정1·2동)=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의 복된 기운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에 스며들어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사명에 충실한 저의 ‘송만정과 함께하는 주민 소통’은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두드려 주십시오. 저, 송만정은 내내에도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초읍동, 양정1·2동)=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오순환 시인의 ‘송년 인사’로 부산진구민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그대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 올해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대 올해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종락) 그대의 품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집입니다. 그대가 숨 쉬는 세상 안에 내 심장이 뛰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대 올해도 살아주시어 살아있음에 큰 행복 함께합니다.” 부산진구의회와 함께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우택 의원(초읍동, 양정1·2동)=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부산진구민의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인생의 산배님으로서 많은 조언과 애정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구의원” 보다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으로서 부산진구의 민원해결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용맹하고 강인한 검은 호랑이 해’의 기운으로 새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광원 의원(부암1·3동)=존경하는 35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2021년도 끝나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잘 대처해 나갑시다. 저 역시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대대히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부암1·3동)=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 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구민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눈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대리인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짧은 안부에 담으며 2022년 범의 해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듬뿍, 건강은 으뜸, 기쁜 동행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문돌 의원(당감1·2·4동)=안녕하십니까 최문돌 의원입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왔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편에서 구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갔습니다. 때로는 때의 눈으로 잘못된 구정 정책을 비판하고 구민을 위한 시책은 조속한 시행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지역민들(소상공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잊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가정과 가족이 모두 무탈하시길 빌면서,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장백산 의원(부천2동, 전포1·2동)=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며 한잔의 커피로 하루를 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힘든 시기를 맞이 하였지만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활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렁찬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힘찬 발돋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의 곁에서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 유지하시고 하시는 일, 바라는 일들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진규 의원(가야1동, 범천1·2동)=임인년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역동적으로 떠오르는 해가 우리 구민의 밝은 미래를 비추주는 듯 합니다. 코로나19로 앓아눴던 일들은 모두 잊고 앞으로 생길 즐거운 일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빨리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이 가진 긍정의 기운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산진구민 모두가 미소 짓는 그날까지 지역주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김재은 의원(가야1동, 범천1·2동)=안녕하십니까 김재은 의원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와 일자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도 물러나고 경제와 일자리도 회복하여 모든 국민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승민 의원(가야2동, 개금2동)=2022년 임인년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고 고생이 많았던 만큼 올해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대대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비례대표)=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더욱 활기찬 2022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구민 여러분의 곁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며 미약한 힘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힘든 일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듯이 작은 일도 소통하고 상생하여 왔습니다. 구민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일만 잇지시길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비례대표)=힘들었던 한 해의 문턱을 지나 밝은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비운 뒤 평은 곧어지듯이 우리는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원,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으로 지역사회(보탬이) 되겠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더욱 활기차고 정진하는 한 해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 부산시장상 수상

매월 1000kg 이상씩 부산진구에 이웃돕기 쌀 기탁

안심정사 부산도량(회주 법안스님)이 끝없는 이웃돕기를 실천해 2021년 12월말 부산시장상을 받았다. 안심정사는 2019년 5월부터 부산진구에 매월 1,000kg 이상의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 2021년까지 부산진구에 기탁한 쌀은 공동모금회 집계만으로도 10kg들이 2,840주(28,400kg)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은 1월 5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부산진구에 쌀 1,000kg를 기탁했다.

회주 법안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신도들이 모은 백

미를 매월 기부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심 부산진구 복지교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배로 늘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한결같이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를 소중히 잘 전달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이날 안심정사가 기탁한 쌀은 부산진구 푸드마켓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 희망복지과 융합서비스계 (605-4355)

종교는 달라도 이웃사랑은 같아요

종교단체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품품 전달 잇따라

부산진구 관내 종교단체들의 이웃돕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서면교회(담임목사 손진현)는 1월 13일 부산진구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손진현 담임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선행과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대학교 입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대진국제자원봉사단(대표 금정선감 이지은)은 12월 29일 양정1동주민센터(동장 진성미)를 방문,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사)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매년 연말 1,0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을 주민센터에 지속적으로 기탁해 오고 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민족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의 산하기관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천2동 소재 부산범천교회(담임목사 정바울)는 1월 11일 설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범천2동주민센터(동장 김현숙)에 백미 10kg 200포(556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부산범천교회는 해마다 안창마을 및 관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각종 성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부암동 소재 부암제일교회(담임목사 김현규)는 12월 23일 당강1동

주민센터(동장 이윤진)에 120만 원, 당강4동주민센터(동장 김옥관)에 100만 원, 부암1동주민센터(동장 이명자)에 1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기탁했다.

김현규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금은 각 동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입학착하금 및 학업장려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부산국제교회(목사 우운규)는 12월 20일 저소득 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백미 10kg) 28포를 전포2동주민센터(동장 최임선)에 기탁했다.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어르신 등 28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범천2동 신암교회(담임목사 권태일)는 12월 22일 범천2동주민센터(동장 김현숙)를 방문, 소년가장 1세대에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암교회는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개금2동 소재 명광교회(목사 임시현)는 12월 30일 개금2동주민센터(동장 강태학)에서 운영 중인 진구네공간에 생필품 7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명광교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웃들이 심시일만 모은 성금으로 진구네공간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말연시 부산진구 이웃사랑 온도 ‘100℃’

■(사)부산진발전협의회 쌀 3,000kg 기탁

(사)부산진발전협의회(이사장 박상국)는 12월 28일 백미 10kg 300포(환가액 900만 원 상당)를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박상국 이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미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3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원디벨롭먼트 1,000만 원 생필품 기탁=주원디벨롭먼트(대표 주성규)는 12월 27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주원디벨롭먼트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제이리안과·롯데 전준우 성품품 기탁=제이리안과(대표원장 한상열, 허중주)와 롯데디자인즈 주창 전준우 선수는 12월 27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과 KF94 마스크 4,000장을 기탁했다. 한상열 대표원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요즘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과 마스크를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준우 선수는 “롯데디자인즈 선수단에서도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날 바란다”고 전했다.

■ ㈜라움팰리스 성금 500만 원 전달=㈜라움팰리스(회장 이진수)는 12월 27일 부산진구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소속 초록봉사단과 (사)부산광역시금두리봉사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 희망복지과 융합서비스계 (605-4355)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해체분회 성품품 660만 원=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해체분회는 12월 28일 성금 200만 원과 라면 200상자(460만원 상당)를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정재호 조직부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품을 기부하게 됐다”며 “좋은 취지에 공감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도 모금해 2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야1동 새마을금고 600만 원 생필품 전달=가야1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손병은)는 1월 4일 가야1동주민센터(동장 김옥운)를 방문해 내의, 생필품 등 선물 110세트 600만 원 상당을 성품으로 전달했다. 새마을금고는 매년 초 가야1동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고 수익금 중 일부로 18년째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웃사랑 불 지핀 의용소방대=당감의용소방대(대장 최병욱)는 연말 이웃돕기 성품으로 3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부산진구에 기부했다. 최병욱 대장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가야포차선지국밥 500만원 기탁=가야2동 소재 가야포차선지국밥(대표 최석순)은 1월 17일 가야2동주민센터(동장 현명욱)를 방문해 설명질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가야포차선지국밥은 해마다 설



명절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2014년 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00만 원 상당의 성품품을 후원했다.

■부암3동 새마을부녀회 성품 500만 원=부암3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양숙)는 1월 14일 쌀 70포, 라면 100박스 등 500만 원 상당을 설 명절 성품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1%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성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 등 170세대에 전달 될 예정이다.

■3H부산지사 생필품 기탁=3H부산지사(지사장 최해숙)는 연말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22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생필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 난방렌트 전달=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는 연말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난방렌트 1棟인원 50개(500만 원 상당)를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난방렌트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있는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육지에서 외식하는 날’ 업무 협약=부산진구는 12월 29일 육지(대표 이재범)과 저소득 가정 무료식사 지원을 위한 ‘육지에서 외식하는 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범 육지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가 적은 저소득 가정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협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육지는 매일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 소식

■부전1동 새마을금고 성품품=부전1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추연중)는 1월 5일 백미 1,940kg과 성금 37만 원을 부전1동주민센터(동장 서영인)에 기탁했다.

■서면 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 부녀회 200만원 성품품=부전2동 서면 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 부녀회(회장 장명숙)는 12월 23일 성금 100만 원과 라면 84박스 100만 원 상당을 부전2동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품품으로 기탁했다.

■더샵 센트럴스타 입주자 대표회의·입주민 성금 230만 원=더샵 센트럴스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민 일동은 12월 30일 이웃돕기 성금 230만 원을 부전2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연지동 새마을금고 릴레이 성품 기부=연지동 새마을금고(이사장 문강길)는 12월 22일 연지동주민센터(동장 김은진)를 방문해 생필품, 라면세트 등 진구네공간 운영에 필요한 18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1월 7일 줌소리운동으로 모은 백미 810kg을 연지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진구네공간’ 후원=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경덕)는 12월 27일 연지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진구네공간 운영에 필요한 7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했다.

■연지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장학금 전달=연지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정복택)는 지역 내 고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등 모범청소년 7명을 선정해 각 3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지동 새마을부녀회 100만 원 성품품=연지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경)는 1월 11일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과 진구네 공간에 필요한 생필품 50만 원 상당을 연지동주민센터(동장 김은진)에 기탁했다

■연지웰치과의원 첫솔세트 성품=초음동 소재 연지웰치과의원(대표 박용진)은 12월 28일 360만 원 상당의

첫솔세트 680개를 연지동주민센터(동장 김은진)에 성품으로 기탁했다.

■연지동 통장협의회 회장 성금=연지동 통장협의회 김효하 회장은 1월 13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연지동주민센터(동장 김은진)에 기탁했다.

■밀양공영사 성금 300만 원=밀양공영사(대표 김호상)는 1월 12일 초음동주민센터(동장 이승주)에 300만 원을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밀양공영사는 명절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진구장학회·개금종합사회복지관·신애재활원 등 지역 곳곳에 도움이 손길을 펼치고 있다.

■초음동새마을금고 성금 300만 원=초음동새마을금고(이사장 이석조)는 1월 6일 초음동주민센터(동장 이승주)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초음동 저소득 6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정2동 청년회 ‘떡국 만드세요’=양정2동 청년회(회장 김성우)는 12월 20일 양정2동주민센터(동장 차승호)에 떡국 떡 13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취지에이치종합건설 성금 200만 원=취지에이치종합건설(대표 이광호)은 1월 11일 양정1동주민센터(동장 진성미)를 방문,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취지에이치종합건설은 현재 양정1동에서 오피스텔을 신축중이다.

■부산용접·전기직업학교 라면 40박스 지원=부산용접·전기직업학교(학교장 오대훈)는 12월 28일 라면 40박스 100만 원 상당을 전포2동주민센터(동장 최임선)에 성품으로 기탁했다. 성품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생필품꾸러미 46세트 기탁=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포2동분회(회장 명광수)는 12월 30일 생필품꾸러미 46세트 230만 원 상당을 전포2동주민센터(동장 최임선)에 기탁했다.

■협성휴프레시티즌파크 라면 157

박스 성품=부암동 협성휴프레시티즌파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1월 11일 사랑의 라면트리 기부행사를 개최해 입주민들이 심시일만으로 모은 라면 157박스를 부암1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부암동새마을금고 본점 쌀 전달=부암동새마을금고 본점(이사장 박수용)은 연말연시를 맞아 줌소리 쌀 기부행사를 개최해 백미 10kg 60포를 1월 13일 부암1동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다.

■부암1동 통장협의회 성금 50만 원=부암1동 통장협의회(회장 신영일)는 연말을 맞아 부암1동주민센터(동장 이명자)를 방문,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통 큰 성품=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본점(대표 이동근)은 12월 30일 부암1동주민센터(동장 이명자)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품으로 라면 680개, 생수 90통, 화장지 66개, 백미 10kg 60포 등 5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

■입학착하금 및 학업장려금 전달=부암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성만)는 12월 30일 부암1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학생 입학착하금 및 학업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부암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외석)도 12월 30일 부암1동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8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학생들의 입학착하금 및 학업장려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당강1동 선물세트 기탁=당강1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강차순)는 12월 28일 당강1동주민센터에 참치향 선물세트 100개를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다.

■당강2동 연탄나누기=새마을지도자 당강2동협의회(회장 임재만)는 12월 19일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연탄 1100장을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 부산광역시협의회에서 연탄을 후원했고, 배금강 새마을지도자 부산진구지부 회장 등 10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연탄 배부 활동에 참여했다.

■개금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200만 원 성금=개금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윤재현)는 12월 22일 개금1동주민센터(동장 진성갑)를 방문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메디메디슨 선물카드·보습크림 지원=㈜메디메디슨(대표 김현교)은 12월 21일 개금2동주민센터(동장 강태학)에 세븐일레브 선물카드 만원권 100매(환가액 100만 원)와 보습크림 192개(환가액 734만4,000원)를 기탁했다.

㈜메디메디슨은 개금동에 위치한 세븐일레브 부산인제대점 점포 내 입점한 의료기기 도매에 업체다.

■개금3동 새마을지도자 성금 75만 원=개금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용근)는 연말연시를 맞아 개금3동주민센터(동장 정철중)에 이웃돕기 성금 75만 원을 기탁했다.

■범천2동 익명의 기부천사 백미 556만 원 기탁=범천2동에 익명의 독지가가 쌀을 보내왔다. 익명의 독지가는 1월 17일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들이 200포 환가액 556만 원 상당을 범천2동주민센터(동장 김현숙)에 차량으로 배달했다.

이 익명의 독지가는 2008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익명으로 쌀을 기탁해왔다. 지금까지 2,000포가 넘는 쌀을 기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독지가는 기부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범천2동주민센터는 이 독지가가 보내온 쌀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 2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정현대2차아파트 우수직원 시상=양정현대2차아파트(회장 김해성, 이하 양정현대2차)는 12월 31일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미화직원 등 6명의 우수직원에게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전달했다.

양정현대2차는 한 해 동안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우수직원을 선발하고 시상식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아기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지원금의 일종인 첫만남이용권이 2022년부터 신설돼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해당 영아에게는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둘째 이후 아동이 2022년에 출생했을 경우 부산시에 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포인트)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 대상자일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카드다. 주로 임신부나 출산모, 영유아가 있는 가정,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첫만남이용권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면 된다. 포인트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다.

매장을 방문해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도 이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된다.

아동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도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시작됐고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대상 확대=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고해 받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종전만 7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영아수당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됐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매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2021년생은 받을 수 없다.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영아수당 3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10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입원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동해선 2단계 개통 부전역~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



택시 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

- 앱으로 택시 호출·택시요금 10% 캐시백
- 마일리지 1% 추가 적립(3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즉 2022년 1월생 아기는 영아수당 3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최근 높아진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경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한다.

종전까지 경형자동차 취득세액은 5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 50만 원 초과일 경우 50만 원 감면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감면 한도를 확대해 7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 75만 원 초과일 경우 75만 원을 감면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였던 해외 출국 수요가 회복될 시기를 대비하여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을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결면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고, 사증면수가 24면에서 26면으로, 48면에서 58면으로 각각 늘었다.

문화유산 디자인을 도입했고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제외했다. 여권번호 체계가 기존 숫자 8자리에서 숫자 7

자리+영문 1자리 조합으로 변경됐다. 문의 : 통합민원과 (888-5333)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병원에 입원한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범운영 중이던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를 2022년 상반기 중 부산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 중 부산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문의 : 여성가족과 (888-1521)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2022년부터 저소득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 급식의 지원 기준 단가를 인상한다. 종전 1식 기준 6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식 기준 8000원으로 2000원 올랐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2021년 초·중·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2022년부터는 지역 내 모든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시행된다. 문의 : 교육협력과 (888-2004)

■동해선 2단계 운행 확대=동해선 1단계 지역(부전~일광) 개통에 이어 2단계 지역(일광~태화강)을 개통해

전동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울산까지 한번에 갈 수 있다. 부전역에서 동해선을 타면 울산 태화강역까지 전철로 64분 내 주파가 가능해졌다. 운행횟수는 평일 102회, 주말·공휴일 92회이며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은 15분이다. 문의 : 도시철도과(888-4082)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서면교차로~주례교차로까지 중앙버스 전용차로(BRT) 공사를 올해 본격 착수해 연내 개통한다. 기존노선은 해운대~동래(10.4km), 동래~서면 광무교(6.6km)~충무동(7.9km)였으나 올해에는 서면 교차로~주례교차로(5.4km)까지 노선이 확대된다. 문의 : 버스운영과(888-3974)

■부산시 택시 호출 공공앱(동백택시) 운영=부산사람은 동백택시를 이용하면 혜택이 크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서비스를 2021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동백택시 운행대수는 11,848대로 현재 부산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60% 수준이다. 이용방법은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실행 후 동백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택시요금의 10%가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2022년 3월부터는 마일리지 1%가 추가 적립될 예정이다. 문의 : 택시운수과(888-3999)

■공공모바일마켓 앱 동백통 구축·운영=전국 최초로 식료품점, 전통시장, 지역기업과의 상품과 제품 소싱을 위한 통합 플랫폼인 '동백통'을 구축·운영한다. 동백통은 독과점 체제의 민간배달 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맹점 등록수수료, 중개수수료, 홍보 비용이 없는 3무(3無)정책이 특징이다. 동백전으로 결제 시 15%(10%+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84)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 보도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이 10점 부과된다. 문의 : 경찰청 (02-3150-2154)

가맹점 등록수수료, 중개수수료, 홍보 비용이 없는 3무(3無)정책이 특징이다. 동백전으로 결제 시 15%(10%+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84)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 보도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이 10점 부과된다. 문의 : 경찰청 (02-3150-2154)

구청·동주민센터 점심시간 일부 휴무

부산진구는 공무원노조 부산진구지부와 협의에 따라 공무원의 쉼 권리 보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부서와 동주민센터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한다.

휴무제 시범운영 부서는 구청 4개 부서(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와 동주민센터 12곳(부전1, 초읍, 양정1·2, 전포1, 부암3, 당감1, 당감4, 가야2, 개금1, 개금2, 범천2동)이다. 해당 부서는 점심시간

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며, 오후 1시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점심시간 휴무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부산진구는 2개월 정도 점심시간에 직원 2명을 두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거나 시급한 민원을 응대할 방침이다.

문의 : 행정자치과 총무계 (605-4102),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진구지부 (605-6371)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위한 한시적 조치

부산진구는 소규모 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한다.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2021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됐다.

부산진구 관내 지원업소는 총 4,022개소였으며, 업소당 평균 72,000원(월 평균 18,000원)의 혜택을 봤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200㎡ 미만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 6,500여 곳으로 확대하고 무상배출 기간을 3월 31

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해당 업소는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기존에 나눠준 무상배출업소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무상배출 기간연장에 따라 스티커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는다.

민간업체와 자체 계약하는 음식물쓰레기 다량 및 사업장 배출업소는 무상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계 (605-4451~5)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무료 세무상담

부산진구는 1월 14일 제4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제3기에 이어서 계속 활동하게 되는 재위촉 7명과 새로 위촉된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부산진구 시민들의 국제·지방세 세무상담을 재능기

부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실을 이용하려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세무1과 세정운영계 (605-4502)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부과

현재 2만~30만 원… 4월 14일부터 4만~60만 원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최고 60만원까지 상향 부과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최저 4만 원부터 최고 6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3월 13일 이후의 자동차에 적용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3월 12일까지의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가 적용된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교통행정과 차량체납관리계 (605-5834)

상담문의 051.629.3513~3515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안내

미용학전공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미(美)의 창조, 미(ME)의 발견

부동산학전공
재테크에서 개발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지킴이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사 전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한국어교사 새로운 도전! 국가자격 2급

2022년 3월 개강

심습교과목 학습자 모집

-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 160시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실습
- 보육실습

지원대상

1. 사회복지사2급, 한국어교원2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3. 대학 및 전문대학 중퇴자/졸업자
4.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
5.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

모집일정

- 원서접수 및 등록기간 : ~ 2022. 2. 28.(월) 까지
- 개강일 : 2022년 3월 2일(수)
- 접수장소 및 방법 :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https://lifedu.tu.ac.kr)
- ※ 선착순 마감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제 만학도 성인학생 모집

중학교·고등학교 주간·야간

배우는 즐거움에 초대합니다!

전액 무료

알기 쉬운 수업

잃어버린 학창시절을 찾자!

- 만 16세 이상 남녀 누구나
- 2년이면 졸업장 취득
- 지하철 장림역 5분 거리 (마을버스 환승 가능)
- 지하철 연계 셔틀버스 무료 운행

(051) 266-4352 ~ 3

부경성인중·고등학교 (2년제)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40(장림동)

간호조무사 국비훈련생 모집(주/야, 남/여)

○ 우수훈련기관 고용노동부 ○ 간호인증평가 3년 인증 [2016. 10 ~ 2022. 09] [2019. 01 ~ 2021. 12]

고용노동부 실업자, 재직자 국비지원

장려금 받고 공부하자! "합격은 기본" 자격증부터 취업까지 "한번에"

메디칼간호학원

대표문의 1588-0325

서면캠퍼스 ☎819-6601 대연캠퍼스 ☎637-6601 서면역 지디스타해 맞은편 | 경성대부경대역 5번 출구

부산진구 카톡 채널 추가 하고 피자 받자!!~

※ 부산진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30명

응모기간 : 2022. 1. 26.(수) ~ 1. 31.(월)
당첨발표 : 2022. 2. 4.(금) ※ 개별통지
경 품 : 도미노피자 + 콜라 1.25L

1. 카카오톡 실행
2. "부산진구" 검색
3. "부산진구"채널 추가
4. 이벤트 메시지 링크에 이름, 전화번호 입력

■특별기고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이 살려면 지역대학을 키워라

2022년 1월 13일은 지방자치 역사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날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 참여를 늘리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넘겨주는 게 골자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보완됐다. 주민 감사청구도 더 쉽게 할 수 있다.

뜻깊은 이날 상징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청와대에서 이날 열렸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동반자로 국정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출범한 셈이다.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

이는 부울경에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지자체의 권한이 커지면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부울경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언뜻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반은 마련된 듯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이 완화될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 시작된 지방분권이 그때보다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보면 답은 나온다.

대학 진학을 앞둔 지역의 고교생들은 무조건 인서울을 이야기한다. 좋은 기업들이 서울에 있고 막고살기가 지역보다 수월하니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대학들은 빗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는 흥흥한 이야기는 실재가 됐다. 제2의 도시 부산에서조차 지난해 폐교 대학이 나왔다. 지역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부 지원이 줄고, 이 때문에 정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선고를 받은 지자체도 부지기수다. 부산의 서구 동구 영도구 3곳과 경남의 11개 지자체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40년 뒤인 2065년에 부산 인구는 200만 명이 무너지며, 울산은 70만 아래로 떨어진다.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1500만 명에 그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유럽 중부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다. 정식명칭은 리히텐슈타인 공국. 국토면적(160km)은 부산시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가장군(180km)보다 작다. 인구는 4만 명이 채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소득은 세계 1등으로 2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3배가 넘는다. 빈부격차가 없고 실업률과 범죄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다.

인구가 적어 노동력이 부족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전통 공구의 대명사 힐티(HILTI)가 이 나라 회사이다. 세계 틀니시장의 20%를 점유한 치과 명문기업 이보클라 비바덴트 역시 리히텐슈타인 기업이다. 기술기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악속의 땅’이다. 또 법인세가 비싸지 않아서 이 나라에 등록된 기업이 73,000개나 있다. 일자리가 많으니 인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매일 리히텐슈타인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17,000명이라고 한다. 소득세도 싸고, 증여·상속세도 1% 미만이다. 법인세가 아까운 기업이나 돈 많은 갑부라면 이곳에 본적을 두고 싶어 하지 않겠다.

부울경도 리히텐슈타인처럼 작지만



강한 도시국가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이, 울산이, 창원이 그렇게 성장한다면 부울경메가시티는 강소 도시들의 연합체가 될 것이다.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한 메가시티가 생기면 수도권 집중은 자연스레 약화한다.

여태껏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수도 없이 나왔다. 수도권 억제, 공공기업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덩치를 더 키워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 보고서는 지역이 몰락하면 대한민국이 종말을 맞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살릴 가장 약발 좋은 처방 중의 하나가 지역대학을 살리는 것과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 본다. 특히 지역에 좋은 대학이 있다면 파급효과가 더 크다. 지금처럼 인서울할 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이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이 올 것이고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다. 졸업한 청년들도 살만한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인서울할 이유가 없어진다. 좋은 직장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다만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거점대학을 서울대 정도의 명문으로 육성할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면 강제로 수도권을 규제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세금혜택이나 자본 제공 같은 직접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울경메가시티로 진입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거나, 메가시티정부에게 재정에 관한 권한을 더 줘야 한다. 나라의 존망이 달렸는데 정부가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다.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남아달라고, 공헌하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다.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인서울을 외치며 고향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안인석(국제신문 경영지원국장)

■독자칼럼

유전자 변형 식품(GMO)에 대한 이해

“한국은 GMO 수입량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다”거나, “유럽인들은 GMO 옥수수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한다” 등의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GMO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GMO 식품은 위험한 걸까?

GMO는 한 생물의 유전자 중 병충해, 추위 또는 살충제 등에 강한 유전자만을 채취한 후 이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유전자에 결합시켜 탄생시키는 새로운 품종이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결과 껍질이 딱딱한 GMO 토마토가 개발되었다.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토마토 유통업자는 큰 편익을 얻게 된다. 또한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미국은 제조제를 여러 번 살포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제초제 내성 GMO 곡물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농장 경영주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GMO 작물이 알레르기 및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특히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의 국민들은 GMO 작물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GMO 작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농수산물관리법’의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며, 특히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농산물의 안전성(safety)에 관하여는 식약처가 주무부처이다.

일반인들은 수입된 GMO 작물을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농산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부, 된장, 빵 등 GMO 작물이 포함된 개별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모두 심사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경우 GMO 작물이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9년에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GMO 작물(콩, 옥수수, 감자 등)이 포함된 27개 식품(된장, 고추장, 콩나물, 두부, 빵 등)에 대하여 ‘GMO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이들 식품의 원료인 GMO 작물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수입을 허가한다.

유전자 변형 과정,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독성과 유전독성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만 해당 GMO 작물의 수입을 허가한다. 더 나아가 한번 허가된 GMO 작물이라 할지라도 10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고려해 볼 때, 가공식품의 원료가 GMO 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작물이 수입 과정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 허가된 작물이라면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GMO 식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보다는 제품 구매 시 제품 뒷면의 원료 표시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GMO 수입 허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용규(동서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 대학 교수)

코로나19 예방 ‘악수 대신 목례합시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 악수 20%.주먹악수 16%로 높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악수는 물론 주먹인사도 하지 말고 목례로 대신합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와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전파감염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악수 대신 목례하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다수 국민은 마스크 착용과 악수 금지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악수를 하는 사람이 6.6%에 달하고 주먹인사를 하는 경우도 34.3%에 이른다. 미국 의학전문 콘텐츠 펠리라스 미디어에 따르면 악수의 경우 바이러스 전이 빈도는 20%에 이르고 주먹악수의 경우에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즉, 접촉면을 통해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있던 바이러스 입자가 손등으로도 빠르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전문가들은 악수 대신 목례를 권하고 있다. 목례 시에는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가볍게 고개만 숙이면 된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적모임 안 하기, 기침할 때 입 가리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은 정착이 되어 있으나 악수나 주먹악수는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서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악수나 주먹악수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만큼 이제는 목례로 인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뉴미디어 담당 캠페인기획팀

어머니 학생 모집

어머니 중 학 생 (2년 졸업)
어머니 고등학생 (2년 졸업)

국가지원 무상교육

영어 ABC를 몰라도~

모든 과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수업

위치 : 당감동(무료통학버스)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중·고등학교

문의 : (051)805-6131~4

2022학년도
성인 중·고등학생 모집

2년만에 졸업하는 어머니 학생모집
선착순 모집(무시험) 3월 입학

주간반(8시 50분) / 야간반(6시)

중학교(2년 과정)	고등학교(2년 과정)
- 초등 졸업 여성, 2년만에 졸업 고등학교 진학 - 교육비 전액 무료	- 중학교 졸업여성 2년만에 졸업 대학교 진학 - 교육비 전액 무료

본교 자랑

- 전국 최초 교육부 지정 1년3학기제 시범학교(정규성인학교)
- 어머니들만의 전용학교(학생, 성인 분리)
- 중학교 예비학교 무료 운영

부산시 금정구 회천로 51
학력 인정
부산예원 중·고등학교
입학상담 (051)526-1852~3

맞춤형 보육의 첫걸음 ———

시간제 보육사업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 모바일(공인인증서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정보	
구 분	내 용
대상연령	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월 80시간	

· 결제방법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 신청 ☎1661-9361
온라인 신청은 1일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 15시까지 가능합니다.

· 장 소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층 시간제보육실

·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최초 이용 시)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준 비 물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관련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936-7011

부산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2.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 부 기 간 : 2022. 1. 16.~2. 3.
- 납 부 방 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부세청), 지방세납부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 청구서, 스마트폰택스, 편의점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청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전국은행 ATM기, 인터넷, 무인수납기, ARS, 편의점, 모바일청구서 또는 지방세납부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etax.busan.go.kr 접속 전자납부
-은행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
-납부전화 1544-1414, 편의점 납부(CU, GS25 등)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납부
-지방세모바일청구서(카카오톡, SK, LG)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1정당 500원 세액공제 -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 이용 안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일반 어르신에게는 저렴하게 복지용구를 대여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누구나(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신청방법 : 전화, 방문(☎502-1445~6,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1층)

○대여품목 : 휠체어, 보행보조차, 수동/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10종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502-1445~6)

청년 강사들이 가르치고 청년 학생들이 배웠어요

‘청년+캠퍼스’ 교육 성료

재밌는 주제 소규모 수업

캘린더 등 성과물 수준 높아

부산진구는 2021년 청년 프로그램 ‘청년 플러스 캠퍼스’ 1-2기 과정을 성황리에 완료했다. 이 과정은 자기계발 교육 브랜드인 베러먼데이클럽(대표 도경백)을 중심으로 청년 강사

와 청년 학생을 연계해 전포동에 있는 부산진구 청년플랫폼인 청년flex 공간 내에서 운영됐다.

프로그램은 ▲유태환 강사의 ‘스마트폰 사진만으로 부수입 만들기’ ▲최성은 강사의 ‘폰으로 만드는 나만의 3분 프로필 영상’ ▲안유미 강사의 ‘하나뿐인 나만의 지도만들기’ ▲한지성 강사의 ‘소규모 파티플래닝 배워보기’ ▲김동욱 강사의 ‘기타로 나만의 자작곡 만들기’ 등 5개 수업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실습을 통해 직접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단순한 재능공유를 넘어선 창작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수료자의 수업만족도가 평균 97점에 달했다. 특히 11월 20일에 진행된 성과 공유회에서는 부산진구를 배경으로 한 캘린더 1종, 엽서 9종, 지도 2종 등 실제 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작품들이 전시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

스마트폰 사진 수업에 참여한 정연주 참여자는 “온라인에서 사진을 배

우는 건 한계가 있는데, 소수정원의 대면실습을 통해 사진 촬영과 보정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완성한 작품은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2022년에도 청년플랫폼 청년플렉스에서 청년들의 일상에 재미와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클래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청년희망계 (605-6342)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잘 배웠습니다”

부산진구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성황리 종료

부산진구는 2021년도 ‘힘찬 청년 영상크리에이터 되기’ 1-3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과정은 부산진구 ‘청년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실습 중심의 교육과 청년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의 미디어 분야 역량 강화와

취·창업을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2021년은 총 3기(1기 10주차)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10명은 3개 팀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고 부산진구 관내 청년업체들을 위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했다.

1기는 외식분야 업체인 버거샵(햄버거), 도우게러지(피자), 그루브맨(카페) 영상을, 2기는 제품제조(관

매) 업체인 까레(공방), 포틴스튜디오(의류, 패션업), 온화공방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했다.

3기는 서비스 개발 업체인 베이트리북클럽(부산 독서모임), 베럴핏(시니어 패션플랫폼), 미스터동(시사 뉴스레터 제작) 관련 영상을 기획 및 제작했다.

이 과정을 위해 영상교육과 실전제작 경험이 풍부한 황성윤(EASY EASE 대표) 강사를 총괄 강사로 섭외해 영상기획 및 촬영,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했다.

또한 실전 포토샵에 강아윤(아운디자인 대표) 강사, 영상콘텐츠 배포전략에 강민희(위더스콘텐츠 마케팅총괄) 강사, 라이브커머스분야 김성현 강사 등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 실무능력 배양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수료자의 수업 평가 점수가 평균이 90점이 넘는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부산진구는 청년들의 영상제작 수요에 대응해 2022년에도 영상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청년희망계 (605-6342)

호천마을 ‘새해소망’ 이벤트 응모하세요

호랑이 조형물에서 인증샷… 당첨자 관광기념품 제공

‘KT&G 상상마당 부산’ 도

호랑이와 만남 이벤트 개최

부산진구는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임인년 흑호랑이해 새해의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호천마을 문화플랫폼에서 새해소망을 기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호천마을은 예전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부산 야경을 감상하는 최고의 명소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부산진구의 대표 관광지다. 부산진구는 호랑

이해를 맞아 호천마을 문화플랫폼에 소원을 들어주는 호랑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새해소망과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소망지를 작성한 후 호랑이 등 호천마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선정 후 부산진구 ‘전포코요괴’ 등 관광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인 KT&G 상상마당부산도 이번 행사와 연계해 같은 기간 동안 ‘호천 달빛호랑이와 상상마당 호랑이의 만남’ 이벤트를 개최한다.

호천마을과 상상마당 1층에 설치된 호랑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린 참여자 전원에게는 상상마당부산 부대시설 할인혜택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상상마당부산 스테이 숙박권 등 시설이용권을 제공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

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코로나19 종식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임인년 한해를 기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 관광과 관광계 (605-4522)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개방등산로 외 입산금지·성묘시 소각행위 집중 단속

부산진구는 성묘객 등 입산자가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장비를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비산근무태세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연휴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불감시원, 공동공로자 등 산불감시인력 52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된다.

또한, 등산로와 성묘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묘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로 빈틈없는 산불감시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산을 찾는 입산자는 지정

된 개방등산로 이외에는 입산금지, 성묘할 때 묘지에서 유품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부산진구는 산림 내 또는 인접 지역에서 담배꽂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림 내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불을 사용하는 풍등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펼쳐 이번 설 연휴에는 시민 안전에 최우선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 : 공원녹지와 산림계 (605-4542)

북콘서트 등 안창마을 축제

부산진구는 12월 28일 안창마을 온마을돌봄센터(춘해유치원)에서 안창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안창마을 역사·영상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하나로 열렸으며 북 콘서트, 주민 영화제, 사진 증정식 등이 진행됐다. 안창마을 역사·영상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2021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안창마을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의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계 (605-4872)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의 주소(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하고,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유언사항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공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안내에서 자필유언증서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현(변호사)

법률상담

Q 저는 아내와 1남 2녀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최근 질병을 얻어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저의 재산을 좀 더 많이 물려주고 싶고, 본인 사후 상속인 간 법적 분쟁 등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작성 방식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증인이나 공증 없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로,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 즉 만 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위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 유언자는 유언장 전문(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유언의 집행 등 유언사항)을 직접 써야 하므로 유언자가 구술하고 타인이 대필하는 경우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은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직접 써야 하는 바, 연·월·일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부산진구 청소년 정책 활발하게 추진

청소년 시설 확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호평’

2021년 부산진구가 추진한 청소년 정책들이 여성가족부 주관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우수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균형 있는 청소년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청소년정책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진구는 청소년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그동안 청소년 성장지

결국 은기는 진짜 제이가 아닌 자신과 시간을 보내며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제이의 복제 로봇에게 가 버린다.

공연을 끝나고 난 후, 혼자 남은 진짜 제이를 보며 어딘지 쓸쓸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와 내 연인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는 상대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 ‘진짜 나’는 ‘가짜 나’가 나타났을 때 과연 무엇으로 그와 나를 구분 지을 수 있을까?

공연을 보고 돌아온 나는 내 연인에게 물었다. “나랑 다 똑같은데 나보다 더 나은 애야. 근데 개한테 가면 배신이야” 앞뒤 설명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내 말을 들은 연인은 당황하다 이내 뮤지컬 내용을 들은 후 빙긋 웃었다.

그는 그럴 일 없이라며 토닥였지만 나는 괜히 뽀로통해졌다. 뮤지컬 결말을 본 순간 잊지도 않은 ‘가짜 나’에게 벌써 진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하는 길에 나는 곰곰 생각했다. 과연 내가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짜 나’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라면 그도 자신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한순간 폭 웃음이 났다. 사실 진짜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나를 채우는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 진짜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그렇다면 저 먼 행성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가짜 나’ 역시도 진짜이다. 그도 나처럼 겨울의 찬바람을 만끽하려 자전거리를 타고 어둠기로 한다.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면 두 사람 앞에 어느 날,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제이가 나타난다.

은기는 혼란에 빠진다. 여태까지 자신의 옆을 지킨 제이는 누구이며 자신이 진짜라 말하며 문 앞에 서 있는 제이는 누구인지. 교통사고가 난 은기를 보살피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은 사실 제이가 아닌 제이의 DNA로 만든 제이의 복제 로봇이었다.

우주로 떠나기 전 제이는 혼자 남은 은기가 안쓰러워 자신을 복제하였던 것. 하지만 은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버겁다. 진짜가 돌아왔지만 왜 가짜 로봇에게 마음이 가는지 자신도 설명하기 힘들다.

최성은(독립출판 해열 대표)



■청년칼럼

보통의 날들

